

9월의 '전설매치'...전북, 서울 잡고 리그 선두 탈환

모라이스의 '결단' 통했다



전북 로페즈(맨 왼쪽)가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FC 서울과의 '전설매치'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22분 추가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북은 서울을 2-0으로 물리치고, 울산 현대를 따돌리고 1위를 탈환했다.
상임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거의 사용않던 스리백 전술 가동
호사 선제공·로페즈 썰기골 폭발
모라이스 "우린 우승만 관심 있다"
서울은 최근 전북에 6연패 '수렁'



"3위와 격차보다 1점 앞선 선두에 관심을 둔다."

통산 7번째 정상을 노리는

K리그1 전북 현대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의 단기 목표는 명확했다. 3위 FC서울과의 간극이 승점 10으로 벌어져 있다는 얘기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북은 서울을 무조건 꺾어야 했다.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했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전북이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서울을 2-0으로 물리치며 선두에 복귀했다. 같은 시각,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울산 현대가 3-3으로 비겨 17승8무3패(승점 59)에 머문 가운데 전북은 17승9무2패(승점 60)로 1위를 탈환했다. 27라운드까지 승점 1 뒤졌던 전북은 울산을 다시 승점 1차로 앞섰다. 승점 47에 머

문 서울은 선두권 추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모라이스 감독의 특별한 카드가 인상적이었다. 평소 수비라인에 4명을 두던 전북은 서울 원정을 위해 최보경, 권경원, 김민혁을 후방에 배치하는 스리백을 준비했다. 스리백은 통상 뒷문을 탄탄히 하려는 팀들이 공격이 강한 상대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한 전략이지만 전북은 공격을 더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

"포백으로 경기를 하면 로페즈와 문선민과 같은 잉 포워드의 수비 부담이 크더라. 의도치 않았는데도 무게중심이 조금씩 내려갔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이라는 것이 모라이스 감독의 설명이었다.

적장도 어느 정도 상대의 패턴을 간파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이번 주 내내 그 (스리백) 훈련을 했다고 들었다. 우리 전방을 책임질 페시치, 박동진의 속도와 연계 플레이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런 바람도 내비쳤다. "익숙치 않은 포메이션에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다." 전북의 스리백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은 흔들리지 않았다. 키오프 5분 간 위치를 서로 조율하느라 혼란이 있었으

나 금세 안정을 찾았다. 오투이 자신들을 위한 선택답게 전북은 초반부터 강하게 서울을 몰아쳤다. 전반 8분, 스리백의 한축을 맡은 권경원이 왼 측면에서 띄운 크로스를 호사가 헤딩 골로 연결해 리드를 잡았다.

사기가 오른 전북은 14분 뒤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불을 갈게 전진시키며 서울의 혼란을 유도한 뒤 손준호의 빠른 통 패스를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은 문선민이 받아 살짝 흘려주자 로페즈가 마무리했다. "올해 전북에 두 번 질 때마다 우리 실수로 스스로 무너졌다"던 최 감독의 우려는 또 한번 재현됐다.

무의미하게 볼을 돌려 점유율만 높았던 서울은 후반 들어 간헐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효율적이지 못했다. 운도 없었다. 후반 26분 페시치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무효 처리됐다. 어렵게 얻은 페널티킥(PK) 찬스도 전북 골키퍼 송범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송범근은 준수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 덕분에 생존 한다'는 후평을 받았으나 서울 원정에서 그같은 이미지를 흩날릴 여지가 없었다. 2017년 7월 안방 승리 이후 전북에 이기지 못했던 서울은 최근 상대에 6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 관련기사 10·11면

상임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스타&스타



화사의 '화사한' 패션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또 다시 파격적인 패션 스타일로 당당함을 과시했다. 화사는 8월30일 인도네시아 공연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청바지의 지퍼를 내린 채 속바지를 훤히 드러냈다. 이를 두고 1일까지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 사이 논란이 뜨거웠다. "개성의 표현"이라는 시각과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부딪쳤다. 앞서 화사는 7월 홍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사진제공 | MK스포츠

남성대비,
여성 치매
발병률
1.8배↑

2018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65세 이상 치매환자 기준



9년간,
50대
치매 환자
2.4배↑

2015.04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력 있으면,
알츠하이머
발병률
2~4배↑

중앙치매센터
치매사전-치매위험인자



치매환자,
1인당 비용
월 평균
173만원

2017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의료비, 조호비용 포함
*1인당 연간 의료비 월 기준으로 산출



치매, 숫자만 봐도 걱정되시죠?

- 치매 진단금: 경도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단계별로 진단금을 꼼꼼히 보장!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 긴 유병기간 걱정 없이, 매월 간병생활자금을 평생 보장!

치매 걱정 든든히 밝혀주는 (무해지환금형)
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치매가 걱정된다면, 깜빡하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860-6700

• 가입 만 2년 이후 보장, 최초 1회 보장(단,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은 매년 진단확정일 생존 시 평생지급)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종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령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을 앓았어도
안심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도
안심

가족력이 있어도
안심

전기범버그릴 상담원료 시, 무료증정!
(0원부터 기간: 2019.09.01 ~ 2019.12.31)
*연속 7일 이상 보험료 납입 시 선착순 선착순 증정
*배출은 상담원료 후 1주 이내 소모(1인 1회 한정)
*당사 세무팀을 통해 납입금과 보험금 지급 내역
*본 계약은 소액지급 가능(10만원)
*소액지급 시 다른 계약과도 연계 가능함

41P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AIA생명보험 주식회사